

8월12일 월요일

예레미야 9장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본장에서는 거짓으로 가득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들을 꺼내 놓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과
나 여호와와 ()과 ()와 ()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장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

본장은 유다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우상들과 얼마나 다른 분 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절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과 대조하여 12-13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로 하늘을 펴셨으며

11장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자(1-2절, 6절), 제일 먼저 그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만 붙들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12장 황무지의 슬픔과 여호와의 분노

본장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해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8월13일 화요일

13장 썩은 베 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

본장에서 베로 된 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베 띠는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죽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12-14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 때문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하나요? (9절, 15절)

14장 백성들과 선지자가 함께 드리는 기도

본장은 정확히 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유다 말의 기근 (가뭄)이 왔을 때 선포된 메세지입니다. 백성들과 선지자가 함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 1) 죄에 대한 회개 :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하였나이다.
- 2)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15장 네 가지로 백성을 벌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유다의 처참한 운명을 놓고 기도 하는 선지자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가장 탁월한 두 인물이었던 누가 다시 살아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나요?

16장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명하시고(2절), 초상집이나 혼인집(잔치집)에도 가지도 않으면서(5-9절), 철저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이러시는 가(10)?"라고 반응합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월14일 수요일

17장 사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 1) 5절: 무릇 ()을 믿으며 ()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 2) 7절: 그러나 무릇 ()를 의지하며 ()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18장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백성을 세우고 허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1-12). 예레미야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5-10), 또한 이미 정한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에 있음 같이 너희가 ()에 있느니라

19장 옹기를 사서 깨어 버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로부터 옹기를 하나 사서, 하시드 문 곁,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시드 문은 깨진 그릇 조각들을 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통로였으며 동시에 우상의 제사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4-5절) 이 최악의 장소는 이제는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요?

20장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다.

본장에서 선지자는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반면 그 메시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 물리적인 폭력, 수치와 모욕등으로 갈등하는 내면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8월15일 목요일

21장 여호와께서 두신 명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드디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 포위를 당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거절이었고, 반복된 심판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2장 유다 왕의 집에 선언하다.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특별히 요시아 이후의 왕들(살룸, 여호야김, 고니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은 경건한 왕이었던 아버지 요시아를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라도,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나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이라."

23장 엄중한 하나의 말씀= 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본장은 악한 왕들(1-8), 거짓 선지자들(9-3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으로 여기는 모든 자들을 향한 경고(33-40)입니다. 33-40절에서 반복되는 '엄중한 말씀'은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온전히 (),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24장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각각 누구를 비유하고 있나요?

8월16일 금요일

25장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본문의 시대 상황은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년이자(1절),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째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부터 예언을 하였으니까, 이들은 이미 거의 23년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권면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은 몇 년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하나요?

26장 핍박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은 다 흥분하여, 예레미야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이런 말을 하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며 몰려들었습니다(8-9절). 그러나 그 중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며 백성들의 손에 내어주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7장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멩을 만들어 매고서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2). 이 메시지는 반 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시드기야 주변에 모인 주변 5개국의 사신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들에게도 전해져야 했습니다(3).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각국을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에 순응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예언했나요? (9,14,16절)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냐

27장의 말씀대로 거짓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여, 이전에 잡혀간 포로들과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2년이 채 되기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3-4). 그가 말을 마치면서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4절) 위로를 주는 것 같은 하나냐의 예언이었지만, 하나님은 거짓선지자였던 하나냐를 어떻게 하셨나요?

8월17일 토요일

29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본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을 내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30장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의 약속 1

30장과 31장은 예레미야서에 흩어져 있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재난의 날, 야곱의 환난의 때는 오겠지만, 그 무서운 심판은 지나갈 것이며, 그들을 옛 조상에게 주셨던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들이시고, "너희는 ()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31장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의 약속 2

본장은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합니다(31절). 이 언약은 옛적 광야에서 조상들과 돌판에 새기고 세운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32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하나요?

32장 내가 그들의 포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본장은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 왕에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왕궁 시위대의 뜰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는 토지를 매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토지매입을 명하셨나요? (44절)

*이 상징은, 이스라엘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회복되어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